

韓國 古代 佛教考古學의 研究現況과 課題

-古代의 主要寺址 發掘調査를 中心으로-

김 길 식 ||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국문초록

한국 고대 사지의 조사와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대략적인 분포현황이 파악될 만큼, 오랜 연구사를 갖고 있다. 1916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가 발족되어 경주 지역 불교유적을 조사하게 되면서 1918년 사천왕사지에 대한 최초의 발굴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1931년까지의 조사는 주로 경주의 신라 사찰 건조물이나 사역 내에 남아 있는 불상, 탑 등의 불교유물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 후 1931년 조선고적연구회가 발족되면서 고대 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경주의 사지뿐만 아니라 평양·부여지역 사지 발굴도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사지 발굴조사가 고구려·백제 사지로 확대되고, 발굴조사도 많이 이루어지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조사는 사찰 중심 건물의 대략적인 배치구조를 파악하고, 중요 건물지를 중심으로 국부적인 발굴에 그쳐, 조사내용이 소략하고, 건물지의 배치구조와 창건·존속시기도 알 수 없는 부실 발굴이 대부분이어서 그 이후의 연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발굴조사 및 연구 경향은 해방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개성 홍왕 사지 발굴을 시작으로 1970년대까지는 사지 발굴이 미술사 연구의 중요한 중심축이 되었다. 1959년 감은사지 발굴조사를 계기로 사지 발굴에 고고학적 관심을 유발하였으나 70년대까지 종래의 건축사적 조사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 후 고대 사지 조사 연구의 획기가 된 것은 1970년대중반~1980년대 후반에 걸쳐 조사된 황룡 사지와 미륵사지 발굴이었다. 사역 전역에 걸쳐 전면적인 층위 발굴이 이루어져 사

지조사 방법론의 변화와 학제간의 접점을 찾아 준 획기적인 발굴이었다. 이 시기 이후부터 고대 사지가 고고학의 중요 관심사가 되었다. 1990년대~2000년대 중반까지는 백제의 중요 사지들이 대거 발굴되어 백제 불교고고학을 추동하였다. 물론 분황 사지를 비롯한 통일신라 사찰들도 계획적으로 발굴되고, 많은 사지들이 구제 발굴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발굴 역시 전면적인 층위발굴에 의해 각 사지의 가람배치 구조와 변화과정이 파악되고, 백제 사찰의 새로운 가람배치 형식이 정립되는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중요 사지의 계속적인 발굴과 함께 과거 부실 발굴되어 성격이 불분명한 중요 사지에 대한 재발굴 조사가 이루어져 새로운 자료들이 대거 확보되고, 종전 조사의 오류를 수정·보완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부실 발굴된 정림사지와 사천왕사지의 재조사 결과는 과거 부실하게 조사된 중요 사지의 재발굴 필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래의 불교유적 조사 연구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교고고학 연구를 한층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역 전체와 주변지역 일부까지 전면적인 층위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불교고고학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발굴 조사와 불교고고학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발굴 결과와 내용을 올바른 방법으로 충실히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 발굴 결과에 대한 학제간 융합 연구가 이루어져 한다는 점, 고대 사지 연구가 정치사 중심에서 벗어난, 종합적인 연구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과거 부실 발굴된 사지는 재발굴되어 구조와 성격 등이 밝혀져야 한다는 점, 불교의 역사와 사상 및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바탕 위에 불교고고학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불교고고학의 세부 주제별 연구와 더불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고고학회와 같은 불교고고학 관련 전문 학술단체의 창립과 활동이 시급히 요망된다.

- 주제어 : 고대사지, 일제강점기, 불교고고학, 가람배치구조, 건물지, 부실발굴, 층위발굴, 학제간 융합연구

I. 머리말

근현대 한국고고학이 한 세기를 지나면서 고고학의 분야가 특정 주제별로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제 ‘불교고고학’이라는 용어도 모든 고고학 연구자들에게 제법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 개념 또한 ‘불교 관계의 유적·유물을 통하여 불교의 과거를 연구하는 역사고고학과 종교고고학의 한 분야’로 인식하는데 그리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불교유적 발굴과 연구에서는 그다지 불교고고학적 관점을 지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교 관련 유적과 유구를 발굴조사 했으면서도 종래의 관점과 방법론만 답습한 나머지, 유적이나 유구의 성격이 엉뚱하게 둔갑한다든지, 유구의 정확한 구조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불명유구’ 또는 ‘불명건물지’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불교고고학이라는 특정 고고학 분야에 대한 인식부족과 조사·연구 방법론의 부재에서 온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¹⁾

한편 고대의 불교 유적·유물들이 일제강점기 이후, 문헌사학과 건축사학 또는 미술사학적 관점에서 발굴 조사되거나 연구되는 행태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불교고고학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고고학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사지의 발굴과 연구는 일제강점기 이후 주로 건축사학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개 사찰의 가람 배치계획이나 구조, 공간 활용, 불교사상과의 접맥 등이 주요 연구 논점이었다.²⁾ 이러한 건축학적 조사와 연구는 사찰 가람과 부속건물의 배치 형식론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1) 양정석, 「寺址考古學序說」, 『보조사상연구』 481호, 보조사상연구원(2004)

2) 김봉렬, 「불교건축」, 『한국건축사 연구1 분야와 시대』, 한국건축역사학회(2003)

또 고대 사원의 가람배치에 대한 논의도 대부분 사찰의 직접적인 기능과 관련된다는 불탑이나 불전 위주로 이루어진 나머지, 사찰에서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못하였다. 또 불전에 대한 연구는 발굴 사례의 정리와 더불어 특정 사원의 불전지 내부 공간배치 구조에 관한 시론적 검토 정도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한편 해방 이후 우리 스스로 사지를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이전의 건축사적 발굴조사 행태를 답습하면서 미술사 연구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파행을 겪어야 했다. 고대 사지가 건축사와 미술사 영역에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은 많고, 또 그 중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사지의 발굴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은 먼저 정당한 고고학적 방법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지 발굴과, 그 결과 드러난 각종 건물지와 출토유물들은 건축사학과 미술사학의 전유물인양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 관련 유적·유물들에 대한 또 하나의 연구 중심축은 문헌사학 연구이다. 문헌사학 분야의 연구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문헌기록에 전하는 고대 사찰을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결부시켜 특정 사지로 비정하거나, 발굴 조사된 중요사찰의 창건시기와 배경을 문헌기록을 통하여 정치사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문헌에 기록된 내용에만 천착한 나머지, 국가나 왕실 등 불교 주도세력들과 불교 교리나 교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사찰에서 이루어졌을 다양한 생활 모습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 연구에서 고고학의 중요성을 역설한 저명한 인도 불교고고학자 그레고리 쇼펜의 지적은³⁾ 경청하여 마땅하다.

3) 성청환, 「불교 연구에서 고고학의 중요성 -그레고리 쇼펜의 학문세계-」, 『불교평론』 38호(2009)

한편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불교고고학 본래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⁴⁾ 비로소 제 갈 길을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지만, 아직도 불교고고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 많은 불교유적들이 알게 모르게 발굴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불교고고학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좀 더 진전된 연구 방향을 모색해볼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불교고고학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는 불교유적(사지)의 발굴조사와 그것을 분석, 해석해 내는 일차적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방법이 중요하다는 점과, 고고학·미술사학·건축사학·문화사학 분야가 어우러져 상호 융합된 연구가 이루어질 때 불교고고학이 지향하는 본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고고학회와 불교고고학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일제강점기 불교유적의 조사 현황과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 현재까지 불교고고학 조사 연구의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발굴이 이루어졌던 주요사지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고대사지 발굴조사와 연구현황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불교고고학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동아시아 고대사지 비교연구(Ⅰ) - 목탑지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술연구총서 제53집(200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동아시아 고대사지 비교연구(Ⅱ) - 금당지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술연구총서 제54집(201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동아시아 고대사지 비교연구(Ⅲ) - 강당지, 승방지, 부속건물지, 문지, 회랑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술연구총서 제54집(2012)

II. 고대 불교유적 조사연구현황과 문제점

1. 일제강점기

한국 고대사찰의 조사와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關野貞을 중심으로 실시된 고적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분포상황이 파악될 만큼,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오랜 연구사를 갖고 있다. 그것은 당시 고적조사가 關野貞을 중심으로 한 건축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관계로, 그들의 1차 관심이 사찰과 같은 건축물에 있었기 때문이다.

1902년 關野貞은 경주, 개성, 서울의 고건축을 조사하면서 경주 불국사, 분황사, 백암사 등을 직접 답사하여 사찰내의 유구·유물도 함께 조사하였다.⁵⁾ 이 조사를 발판으로 하여 1911~1915년에는 불국사, 분황사, 굴불사지, 낭산, 백암사, 나원리사지, 황복사지, 망덕사지, 정혜사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조사는 현장답사와 사찰 내에 있는 유구·유물을 조사하여 기록하는 정도였다. 그 후 1916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關野貞을 중심으로 건축·고고·역사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경주지역 불교유적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1918년 마침내 사천왕사지가 최초로 발굴 조사되어 녹유신장벽전, ‘四天王寺’銘 기와 등이 출토되어 이 사지가 사천왕사지로 입증되었다.⁶⁾ 그 후 1922년에도 이전에 조사된 사천왕사지와 함께 망덕사지, 황룡사지, 창림사지 등이 조사되었다.⁷⁾ 이때의 사지조사는 각 사지의 역사적 연혁 검토, 사역 실측, 보존방안 강구 등 이전 조사에 비해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발굴조사로는 나아가지

5) 關野貞, 『韓國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1904)

6) 朝鮮總督府, 「內東面 四天王寺址 一部調査」, 『大正七年古蹟調査報告』(1922)

7) 朝鮮總督府, 『大正十一年古蹟調査報告』(1924)

못하였다. 이때까지의 조사는 주로 경주지역 중심이었다.

그 후 1931년 조선총독부 조선고적연구회가 발족되어 조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종전부터 조사해 왔던 경주지역과 함께 평양·부여지역으로 조사가 확대되고, 발굴조사도 많이 이루어지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사지조사에 있어 하나의 분기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사지의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31년 발족한 조선고적연구회의 주도로 평양·부여·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시의 조사는 사지 측량에 의한 사찰 내 중심 건물의 대략적인 배치구조를 파악하고, 중요 건물지를 중심으로 몇 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국부적인 발굴만 하여 중요 건물지의存否와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층위관계의 파악에 의한 건물지 중복관계, 수·개축과정과 가람과 건물지 배치의 변화과정 등의 파악은 요원하였다.

경주의 신라 사지는 고적조사연구회가 발족된 이후에도 종전부터 조사해 왔던 사지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1935년에는濱田耕作가 경주지역 사지에서 수집한 기와를 정리하였으며,⁸⁾ 조선총독부 기사였던 藤島亥治浪는 1927년부터 경주 일대를 답사하여 신라왕경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황룡사지, 분황사지, 망덕사지, 보문사지, 흥륜사지, 황복사지, 창림사지 등 많은 사지를 조사하여 신라왕경 연구의 기초를 세웠다.⁹⁾ 그 이후의 불교유적 조사는 경주 중심에서 부여와 평양의 백제·고구려사지 조사로 전환하게 되어 신라 사지조사는 답보상태에 들어갔다. 따라서 불교유적 발굴조사만으로 볼 때는 이 시기도 하나의 획기로 설정될 수 있을 것 같다.

고구려 사지는 1937년부터 38년·39년에 평양의 원오리사지¹⁰⁾와 청암리사지,¹¹⁾ 상오리사지가 각각 연차적으로 발굴 조사되었다.¹²⁾ 원오리사지는

8) 濱田耕作, 『新羅古瓦の研究』, 京都帝國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報告 第13冊(1935)

9) 藤島亥治浪, 『朝鮮建築史論』(1931)

10) 朝鮮總督府,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1937)

1937년도에 최초로 발굴 조사된 고구려 사지로서, 조사 결과 상하 2단의 기단으로 조성되었으며 상단부가 사역의 중심이며, 하단에는 산문 등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정확한 건물지 배치구조는 파악되지 못하고, 고구려 기와편과 연화문와당, 泥佛이 출토되어 고구려 사지로 추정될 뿐이었다. 청암리사지는 1938·39년도에 小泉顯夫의 발굴에 의해 고구려 불교사원으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팔각평면의 탑지 북쪽과 동·서에 3개의 금당이 배치되고 북금당 북편에 강당 건물지가 있는 1탑3금당식의 고구려식 가람배치구조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출토된 기와편 가운데 ‘寺銘이 확인되었는데, 북한 연구자들은 문자명왕 7년(498년)에 개창한 金剛寺로 비정하기도 한다. 1939년 齊藤忠에 의해 조사된 상오리사지는 팔각평면의 탑지와 그 좌우에 방형의 동·서금당의 건물지가 확인되어 청암리사지와 같은 1탑3금당식의 가람배치구조로 추정되었다. 이상이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고구려 사지 전부지만, 청암리사지 발굴을 계기로 1탑3금당식의 고구려 사원의 가람배치구조가 이 때 이미 밝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해방 이후 한 동안 이 때 조사된 1탑3금당식의 고구려 사원의 가람배치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1974년 정릉사지와 토성리사지 발굴을 통하여 1탑3금당식이 고구려 사원 가람배치의 전형으로 확증되었다. 일제강점기에 고구려 사지 조사가 신라나 백제에 비하여 소략한 것은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사지의 흔적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양지역 고적조사의 목적이 주로 內鮮同調論의 이론적 체계 마련을 위한 낙랑고분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¹³⁾

한편 1935년부터 시작된 백제 사지의 조사과정을 보면 당시의 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일제는 1931년 조선고적연구회를 조직하여 이전의 고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이어받아 1945년까지 고적

11) 朝鮮總督府, 『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1940)

12) 田中俊明・東潮, 『韓國の古代遺蹟 1 -高句麗・新羅篇-』, 中央公論社(1988)

13) 오연찬, 「낙랑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낙랑』, 국립중앙박물관(2001)

조사사업을 주도하게 되는데,¹⁴⁾ 1935년 부여에 백제연구소를 설립하여 부여 지역 고분과 사지 발굴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당시 부여지역 사지조사를 담당하였던 石田茂作은 불교고고학 전문가였지만, 조사방법은 여전히 關野貞 이래의 건축사적 발굴로 일관하였다. 그의 백제 사지 발굴조사 참여는 당시 일본 내에서 관심사였던 飛鳥時代의 사원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⁵⁾ 이 즈음 기와 연구자인 藤澤一夫도 부여로 출장하여¹⁶⁾ 일본 고대 기와의 원류를 백제에서 찾고자 하였다.¹⁷⁾ 이처럼 부여지역 고적조사는 백제 사원과 와당에 관심 있던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부터 사지 조사에 집중되었다. 먼저 石田茂作에 의해 군수리사지, 동남리사지, 가탑리사지 등이 발굴되고, 후에 有光教一에 의해 외리사지¹⁸⁾가 발굴되었다. 1939년 조선총독부박물관 부여분관 백제연구소에 부임한 藤澤一夫는 정림사지, 구아리사지, 구교리사지, 부소산폐사지(서복사지), 금성산폐사지 등을 발굴했지만, 1945년 이후에야 그 내용이 소략하게 보고되었다.¹⁹⁾ 이러한 부여지역 사지들은 조사내용이 너무 소략하고, 건물지의 평면 배치구조와 창건·존속시기가 불분명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몇몇 사지에 대해서는 재발굴이 실시되었다. 정림사지와 부소산폐사지를 시작으로 금성산사지, 동남리사지, 군수리사지, 정림사지에

14) 李順子, 「일제강점기 조선고적연구회와 고적조사사업」,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연구』(2009)

15) 石田茂作, 「百濟寺院と法隆寺」, 『朝鮮學報』5

16) 藤澤一夫, 「百濟國都泗沘城と日本攝河國百濟郡」, 『激動の古代東アジア』, 帝塚山考古學研究所(1995)

17) 高正龍, 「扶餘時代の藤澤先生」, 『朝鮮古代研究』5(2004)

18) 외리유적은 발굴 당시부터 지금까지 불교사원터로 이해되어 왔으나 출토된 문양전의 구성과 문양 형태의 분석을 통하여 道觀과 같은 도교 관련 건물지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김길식, 「고고학에서 본 한국 고대의 도교문화」, 『한국의 도교문화』, 국립중앙박물관(2013)).

19) 藤澤一夫, 「百濟佛教遺蹟の研究」, 『人文』3卷1號(1946)

藤澤一夫, 「古代寺院の遺構に見る韓日の關係」, 『アジア文化』8卷2號(1971)

대한 재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일부 사지의 경우 그동안 확인되지 못했던 건물지나 유물들이 드러나는 등 일제강점기의 조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백제식가람배치의 전형이 새롭게 파악되기도 하였다.²⁰⁾ 이로 보아 당시의 발굴조사가 얼마나 졸속이었던지를 알 수 있다.²¹⁾ 따라서 발굴이 부실하거나 미보고 또는 불성실한 보고 자료는 재조사와 재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사지발굴조사 및 연구경향은 해방 후 우리 손으로 발굴하게 되고 서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2. 해방 이후 ~ 1970년대 전반

해방 이후 우리 손으로 불교유적을 조사할 수 있게 되면서 처음으로 조사한 사지는 고려 태조 10찰의 하나인 홍왕사지 발굴이었다. 이 역시 일제강점기 이래의 발굴 방법이 그대로 답습되었다. 홍왕사지 발굴은 고유섭·황수영·진홍섭 등 불교미술사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 사지 발굴 조사 연구가 미술사 연구의 중요한 중심축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59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감은사지 발굴조사는²²⁾ 사지에 대한 최초의 고고학 발굴조사였다는 점에서 불교고고학 연구의 중요한 기점이 된다. 그러나 이때의 발굴조사에서는 사지의 대략적인 윤곽과 성격만 파악되고, 1979·80년 2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사역 범위와 중문·쌍탑·금당·강당이 회랑으로 위요된 전형적인 쌍탑식가람임이 밝혀졌다.²³⁾ 금당과

20) 李炳鎬, 「百濟 定林寺式伽藍配置의 展開와 日本의 初期寺院」, 『百濟研究』 54集, 충남대 백제연구소(2011)

21) 金成南·李美賢, 「日帝強占期の 遺蹟 發掘調査와 再檢討」, 『日帝強占期の 泗泚 認識』 (2009)

22) 金載元·尹武炳, 『感恩寺』, 國立博物館(1961)

동·서 회랑 사이로 翼廊을 두었으며, 금당 아래에서는 동해의 용이 된 문무왕을 감은사 금당에 들어오게 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전하는 石造遺構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감은사지 1차 발굴조사 역시 이전까지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대략적인 성격과 윤곽만 확인되었을 뿐, 사역 전체의 구체적인 건물지 배치구조와 각 건물지의 구조 및 특징 등은 2·3차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확인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1차 조사가 사지발굴의 중요한 기점이 되기는 하였지만 발굴방법 등에 있어서는 종전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그 후의 사지 발굴조사는 대체로 고고학적 방법을 지향하였지만, 사지 조사 연구가 일찍이 건축사와 미술사 연구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바, 사찰의 건립 시기, 건물지의 선후관계, 출토유물의 성격과 편년 등 층위 발굴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문제에 있어서 고고학과와 마찰이 불가피하였다. 한편 감은사지 발굴을 기점으로 사지 발굴이 고고학적 조사로 전환되어 갔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건축사적 발굴 행태가 계속되었다. 이때까지도 건축사학의 주요관심은 여전히 사찰의 평면배치 형태, 중심건물지의 구조와 배치관계 등이었으며, 미술사학계 역시 가람배치구조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3. 1970년대 중반~1980년대

1976~1983년까지 실시된 황룡사지 발굴조사는 고대사지 발굴조사에서 건축사학과 고고학과·미술사학과·문헌사학계의 접점을 찾아 준 획기적인 발굴이었다. 장기 계획에 의해 사지 전역이 층위에 입각한 전면 발굴이 이루어진 결과, 동·서 288m, 남·북 281m의 정방형 사역에 중문-탑-금당-강당이

2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感恩寺發掘調查報告書』(1997)

남북으로 배치된 일탑식가람배치를 기본으로 하여, 3개의 금당이 동-서로 병열된 일탑삼금당식의 특수한 가람배치구조임이 밝혀졌다. 층위 발굴 결과, 사찰은 기록에 전하는 바와 같이 높지를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건립되었음이 밝혀졌다. 목탑지의 전방 좌우에는 각 1동씩의 종루와 경루를 세웠으며, 강당 좌우에도 각각 1기씩의 독립된 건물을 배치하였다. 금당 내부의 중앙부 후면에 장육존상의 대좌석이 놓이고, 그 양편에 脇侍佛의 대좌석이 각각 놓여 있었다. 이 삼존불 대좌를 중심으로 양편에 각각 8개의 佛臺座가 배치되어 총 19개의 대좌가 배치되었다. 목탑지의 중앙에는 육중한 돌로 덮인 심초석이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은 대가람은 대략 4단계에 걸쳐 완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룡사지 발굴에서 출토된 4만여 점에 달하는 다종다양한 유물들은 가람배치 구조와 각 건물지의 구조 및 성격과 더불어 건축사학·고고학·미술사·문화사학 분야의 연구를 추동하였다. 그러나 황룡사지 발굴이 획기적인 고고학적 발굴이었지만, 여전히 건축사적 입장에서 사찰의 가람배치와²⁴⁾ 구조 및 조영계획²⁵⁾ 등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 후 고고학 조사결과와 문헌을 접목시켜 신라 국가와 왕실과의 관계,²⁶⁾ 왕경 도시계획과의 관계²⁷⁾ 등 거시적인 관점의 연구도 이루어졌다. 한편 고대 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4년 황룡사지 발굴보고서가²⁸⁾ 출간되면서부터 더욱 활성화되었다. 특히 층위의 변화 양상에 따라 4차례에 걸친 축조과정이 확인되고, 각 층위별 유구와 문헌기록과의 대비를 통해 초축, 중건, 폐기 과정과 시기가 파악될 수 있었다.²⁹⁾ 이러한 층위 발굴 결과에 대한 보고

24) 김정기, 「황룡사 가람변천에 관한 고찰」, 『황룡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문화재관리국(1984)

25) 金東賢, 「黃龍寺の建築計劃に關する考察」, 『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1992)

26) 梁正錫, 『新羅 中古期 黃龍寺의 造營과 그 意味』,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27) 申昌秀, 「中古期 王京의 寺刹과 都市計劃」,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6(1995)

2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1984)

2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4, 『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내용은 유구와 출토유물에 대한 고고학적·미술사적·문헌사학적 관심을 촉발시켰다. 종전의 기와 연구가 미술사 연구에서 탈피하여 고고학 연구로 전환되었으며,³⁰⁾ 황룡사 대지조성층에서 출토된 신라토기가 황룡사 始創 년대인 553년 이전이라는 편년 자료로 활용되어 신라토기나 신라고분 편년의 표지 자료로 활용되었다.³¹⁾ 이때부터 사지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고고학의 관심대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와 같이 황룡사지 발굴을 계기로 종전의 건축사적 연구도 견지하면서도 각 분야별 새로운 연구 방향들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황룡사지 발굴과 함께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륵사지(1980~1996년)와 같은 대규모 사지들에 대한 계획적인 발굴이 이루어져 각각 신라와 백제의 사지 발굴조사 연구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지 조사연구를 한층 추동하였다. 특히 미륵사지는 1920년대 후반 藤島亥治郎의 지표조사 결과, 서탑 원과 동탑원의 후방에 중탑원이 있는 品字形 가람배치구조가 제시되었는데, 1981년 중원 목탑지와 금당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三國遺事』의 ‘殿塔廊廡各三所創之’라는 기록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³²⁾ 그러나 1970년대 중반~1996년,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전면적인 발굴조사 결과, 三院竝列式 가람배치구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³³⁾ 따라서 藤島의 연구는 지표상의 흔적을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문헌기록과 그대로 접목시킨 결과, 전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경우도 중문-탑-금당을 기준으로 하면 삼원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30) 申昌秀, 「三國時代 新羅 기와의 研究 -皇龍寺址 出土 新羅기와의 中心으로-」, 『文化財』 20(1985)

31) 최병현, 『신라고분 연구』, 일지사(1992.)

32)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其三」 『建築雜誌』 2(1930)

33) 梁正錫, 「彌勒寺址 塔址의 調査過程에 대한 檢討」, 『韓國史學報』 36, 高麗史學會 (2009)

있지만, 강당과 동·서 승방은 중원의 북쪽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중원 영역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동·서승방의 건물 중심축과 중원의 중문-동탑-동금당의 축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도 동·서승방이 중원과는 별개의 원을 구성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미륵사지 가람배치는 탑과 금당이 동등하게 배열된 삼원이 아니라, 중앙의 목탑과 중금당, 그 북쪽의 강당과 동서승방 등이 하나의 가람을 구성하고, 그 동·서에 다시 탑과 금당을 추가 또는 확장 배치한 다음 동·서회랑으로 전체 사역을 감싸면서 전체가람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⁴⁾ 이와 같이 미륵사지의 경우도 당초 밝혀졌던 가람배치 구조가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검토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09년 서석탑 보수정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心礎石 舍利孔에서 舍利奉安記를 비롯한 다양한 사리장엄구가 출토되었다. 그 후 7회에 걸친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등 다방면의 검토가 있었다.³⁵⁾ 그 중 舍利奉安記의 己亥年(639) 「伽藍造立」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발원자가 『삼국유사』에 전하는 善花公主가 아닌 사택적덕으로 기록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³⁶⁾ 전술한 바와 같이 미륵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³⁷⁾ 중원의 서회랑지와 서석탑지의 토층 조사 결과, 중원 회랑이 먼저 조영된 이후 서탑지의 地盛土 및 築基部 기단이 축조되었음이 밝혀졌다.³⁸⁾ 동탑과 서탑의 경우 잔

34) 國立文化財研究所·益山市, 「彌勒寺의 寺刹配置」 『彌勒寺復原考證基礎調查研究報告書』2(2010)

35) 國立文化財研究所·益山市, 『彌勒寺復原研究學術資料叢書』Ⅰ~Ⅳ』(2010)

36) 金相鉉, 「百濟 武王代 佛教界의 動向과 彌勒寺」, 『韓國史學報』37, 高麗史學會(2009)

37) 李炳鎬, 「百濟 寺院과 日本 飛鳥寺 三金堂의 原流」, 『百濟研究』57集,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2013)

38)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彌勒寺址西塔 周邊發掘調查報告書』, 학술연구총서 제28집

존하는 탑의 部材를 비교·분석한 결과 서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후에 동탑이 건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³⁹⁾ 또 최근의 서석탑의 하부 조사 결과, 석탑의 기단 성토층에서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이 와당 형식은 미륵사 創建瓦로 밝혀졌다.⁴⁰⁾ 따라서 미륵사 서석탑은 가람중심부 건물보다 늦은 시기에 순차적으로 조영되었을 개연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

한편 미륵사지 서탑의 사리봉안기에 의해 그 건립 연대와 발원자는 확실히 밝혀졌다. 그러나 3개의 탑과 원으로 이루어진 미륵사지의 창건 년대와 그 발원자를 서탑의 건립연대인 639년과 사택적덕으로 고정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삼국유사』 무왕조 기록을 바탕으로 한 문헌사 연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미륵사의 발원자를 선화공주로 인식해 왔다. 사리봉안기가 출토되자 미륵사의 발원자가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적덕이라든가, 목탑이 있는 중원이나 동탑이 있는 동원이 선화공주의 발원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굴 결과와 출토유물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리봉안기와 『삼국유사』 기록에만 집착한 데서 빚어진 것이라 하겠다. 건립연대 역시 『삼국유사』 기록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발굴 결과와 사리봉안기를 통하여 서원은 620년대 후반부터 639에 걸쳐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미륵사의 창건시기와 발원자를 둘러싼 이러한 두 사례는 불교유적·유물의 해석에 있어서 문헌기록의 맹목적인 수용과 이에 단순 대입하는 역사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발굴 결과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검토의 중요성도 잘 대변해주고 있다.

황룡사지와 미륵사지가 발굴되고 보고서가 발간된 후 건축사학계의 고대

(2001)

39) 扶餘文化財研究所, 『益山 彌勒寺址 東塔址 基壇 및 下部 調査報告書』, 학술연구총서 제2집(1992)

40) 國立文化財研究所, 2012, 『彌勒寺址石塔-基壇部發掘調査報告書』 (2012)

사지 연구는 불전 구조복원을 통하여 불교의례와 불전 내부 공간 배치와의 관계 및 그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대 불전건축은 하나도 없어 고려시대나 임진왜란 이후에 재건된 불전을 참고하여 불전의 내부 공간배치 구조를 복원하고 있어 고대 불전건축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고대사지의 가람배치 형식에 대한 논의밖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 고대 불전건축의 장엄방식의 복원,⁴¹⁾ 불전의 구조와 불상봉안 방식과의 상관관계,⁴²⁾ 불전 내부 공간의 변화와 불교의례 변화와의 상관관계⁴³⁾ 파악 등은 중요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전이라는 사찰의 중심건축 하나만을 따로 떼 내어 분석하다 보니 부속건물지의 전체적인 배치관계와 각 건물지의 기능 파악은 미진하였다. 일례로 백제 사찰 가람의 경우 부분적인 발굴 자료를 근거로 불전과 가람배치 구조가 복원되었던 결과, 백제 사찰 가람의 정형 또는 다양한 배치구조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였다. 종래 백제 사찰의 가람배치는 회랑으로 위요된 일탑일금당식 가람배치가 전형인 것으로 파악되어 왔으나,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미륵사지, 제석사지, 정림사지 등이 전면 발굴 또는 재 발굴된 결과, 크게 3가지 형태의 건물지 배치구조가 6세기 중엽부터 7세기 전반까지 계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되거나⁴⁴⁾ 더 세

41) 이강근, 「한국 고대 불전건축의 장엄방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 12, 한국미술사학회(1998)

42) 이정국·이강업, 「고려시대 불전과 불상의 봉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7권7호(통권 117호)(1998)

이강근, 「조선전기 불교 사원건축의 전통과 신조류」, 『미술사학연구』 202, 한국미술사학회(1994)

43) 이승희, 「무위사 극락보전 백의관음도와 관음예식」, 『동악미술사학』 10(2009)

이정국, 「고대 및 중세 불전 이용방식에 관한 연구 -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2(2)(2003)

44) 정자영, 「백제 사원의 가람배치와 전개과정 고찰 -탑·금당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대사지 비교연구(Ⅱ) -금당지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술연구총서

분되어 4가지 유형으로 파악되는 등⁴⁵⁾ 종전의 단순한 건물지 배치구조와 그 변화 과정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괴리는 무엇보다도 전면발굴과 층위발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의 중요 건물지만을 대상으로 한 국부적인 발굴과 층위와 출토유물에 대한 분석과 정확한 편년이 결여된 채, 가람과 건물지의 평면 구조 파악에만 집착한 데서 온 당연한 귀결이었다. 1탑1금당식 가람배치 유형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탑-금당-강당 등의 중심 건물지에 부속된 건물지 또는 회랑 위쪽에 부가된 부속건물지가 기준이 되어 사찰 건물지의 배치구조 유형이 새롭게 설정되고, 시대별 변화과정이 파악될 수 있었던 것은 종전의 틀에 박힌 가람배치 구조에 대한 경직된 인식에서 벗어나 사찰 내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건물지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어, 이를 고고학적인 전면 발굴을 통하여 밝혀낼 수 있었던 중요한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4. 1990년대 ~ 2000년대 중반

이 시기에는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 제석사지 등 백제의 중요한 사지들이 대거 발굴되어 백제 불교고고학 연구를 추동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주의 분황사지와 같은 통일신라 사지들도 계획적인 발굴이 이루어지고, 이름 모를 사찰들이 대규모 건설공사에 수반하여 구제 발굴되기도 하였다.

1992년부터 발굴 조사된 능산리사지는 금동대향로와 昌王銘 石造舍利龕

제54집(2010)

- 45) 한나래, 「백제 사비기 사찰의 부속건물지 연구」, 『동아시아 고대사지 비교연구(Ⅲ) -강당지, 승방지, 부속건물지, 문지, 회랑지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술연구총서 제54집(2012)

이 출토된 곳으로 익히 알려진 백제 사비기의 대표적인 사지이다. 사리감의 명문에 의하면 567년에 木塔의 심초석이 매립되지만, 그보다 약간 이른 6세기 중엽에 건립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원은 谷間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대지조성이 이루어지고, 가람 외곽 전체를 두른 대규모 배수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토층조사 결과 위에서 아래 쪽으로 나아가면서 대지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토된 대지에는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곽의 대형 배수로와 연결된 석축암거가 설치되었다. 가람은 남문이 없는 상태에서 중문과 목탑-금당-강당이 남북 일직선 상으로 배치되었는데 동·서 회랑지 북단에는 각각 공방지와 불명건물지 등의 부속건물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강당지 북쪽에는 僧房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확인되었다.⁴⁶⁾

중문지 남쪽의 인공수로에서 연결되는 자연수로에서는 많은 목간들이 출토되었다. 이 목간들은 성왕이 전사하는 554년 이후부터 567년 목탑이 건립되던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위쪽에 있는 강당지에서 사용된 것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⁷⁾ 목간에 기록된 내용이 불교나 도교, 즉은 사람의 의례와 관련된 것, 물품의 생산지와 이동과 관련된 것, 물품 장부와 같은 것 등이 망라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목간들은 능산리사지의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1점의 목간은 왕실사원인 능산리사지에 배속된 藥部 소속의 藥兒에게 食米를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이다.⁴⁸⁾ 그 외에도 寶喜寺, 자기사 등 寺名이나 쌀과 같은 물품이 기록된 하찰 목간들도 있어 다른 사찰과의 인적·물적 교류관계와 사찰의 물품 수급 및 유통관계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이 확보되었다. 또 대지조성층과 암거 등 배수시설의 축조 과정, 건물지의 구조 등의 검토를 통하

46)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陵寺-부여 능산리사지 10차 발굴조사보고서』(2008)

47) 朴仲煥, 「扶餘 陵山里發掘 木簡 豫報」, 『韓國古代史研究』28(2002)

48) 노중국,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2005)

여 강당지와 그 좌·우 부속건물지, 그 앞의 동·서 회랑지 위쪽의 부속건물지 등이 1차로 건립되고, 목탑지와 금당지, 중문지, 회랑지 등이 2차로 건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⁴⁹⁾ 강당지를 중심으로 한 1차 건물지군은 전체로서 宗廟나 始祖廟⁵⁰⁾ 또는 능산리고분군에 매장된 성왕의 빈전,⁵¹⁾ 성왕을 추복하기 위한 각종 제사를 담당하던 祠廟⁵²⁾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후 567년 목탑의 심초석 안치시기를 전후하여 2차 건축군인 목탑과 금당 등 사원 관련 시설이 들어서 전체적인 가람이 완성된다. 이때부터 1차건축군과 2차 건축군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통사로 기능하게 된다. 강당지를 중심으로 한 1차 건물지군은 통사로 변화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찰의 부속시설로 기능하였다. 그 중 어떤 건물지는 왕실과 능산리고분군에 필요한 중요 금공품을 제작하는 공방지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사역 안팎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 창왕명석조사리감을 비롯하여 와전류, 토기류, 금속제품류, 목제품류 등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중문지 앞의 저습지에서는 30여 점의 각종 목간이 출토되어 능산리사지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성격의 의례와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상이 능산리사지 발굴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대략적인 내용이지만, 불교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사역 전체와 주변부까지 전면 발굴됨으로써 사역의 점체 범위 파악은 물론 중심건물지와 부속건물지, 주변건물지, 배수로, 암거, 사비성 東門으로 통하는 도로 등 종교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관련 시설이나 수공업

49) 李炳鎬, 「扶餘 陵山里寺址 伽藍中心部の 變遷 研究」, 『韓國史研究』 143
金吉植, 「百濟 始祖 仇台廟와 陵山里寺址 -祀廟에서 陵寺로-」, 『韓國考古學報』
52(2009)

50) 金吉植, 주48)의 전계문

51) 申光燮, 「百濟 泗泚時代 陵寺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52) 李炳鎬, 주48)의 전계문

생산시설까지 확인됨으로써 사찰이 일상생활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확보되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된 사지 발굴조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고대사찰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또 사지 앞의 습지까지 전면 발굴조사함으로써 지계, 발채 등의 유기질제 생활용구들은 물론, 좀처럼 접하기 힘든 목간까지 다량으로 확보됨으로써 능산리사지의 성격과 기능 파악은 물론,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적·물적 교류 관계나 다른 사찰과의 유기적인 관계, 도교 등 다른 종교나 신앙과의 관계 등 사찰과 관련된 정치·경제·사회·생활·문화상을 종합적으로 조명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대지조성 과정을 보여주는 명확한 층위 파악, 각종 건물지 구조와 건물지 상호관계의 명확한 파악, 출토유물의 정확한 층위와 위치 파악 등 고고학 발굴의 기본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값진 성과였다고 하겠다.

능산리사지는 부여 나성의 동문과 능산리고분군 사이에 위치한 위덕왕대의 왕실 발원 원찰이지만, 祠廟에서 원찰로 변화한 이례적인 사지이다. 능산리사지의 이러한 성격과 기능 변화는 고대 사지조사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원찰은 어떤 특정인의 죽음에 즈음하여 이를 추복하기 위한 사찰이므로 당시의 상장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닐 수 밖에 없다. 특정인의 죽음에 즈음하여 기존의 사찰을 원찰로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원찰을 건립하는 경우도 있다. 또 귀족의 저택을 사찰로 전용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특정인(성왕)의 죽음과 관련되는 원찰의 경우 능산리사지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능산리고분군의 왕릉에 매장되기까지의 상장례나 매장 후의 계속적인 제사를 위한 사묘로도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어 주의 깊은 검토와 연구가 요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같은 원찰 성격을 지닌 왕흥사지의 경우도 위덕왕 왕자의 죽음과 관련된 상장례가 거행되었거나 무덤에 매장한 후 계속적인 사묘 역할도 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따라서 능산

리사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당지와 그 좌·우 건물지, 회랑지 북쪽 건물지와 금당지, 목탑지, 회랑지 등과의 선후관계 및 상관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또 이와 같은 원찰들이 해당 인물의 무덤 인근에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임을 감안할 때 왕흥사지 주변 구릉지 조사를 통한 지배층의 매장유적(위덕왕 왕자 무덤) 확인도 필요하다. 능산리사지의 발굴조사 사례는 회랑으로 위요된 하나의 사찰가람이라 하더라도 전체 가람이 하나의 기획하에 동시에 조성된 것일 수도 있고, 각기 다른 목적에서 순차적으로 축조되어 전체 사찰가람을 구성하는 예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대사지 발굴조사에 있어서 평면적인 배치구조만을 가지고 사찰가람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사찰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다른 기능으로 변화하거나, 처음에는 사찰이 아닌 건축물에 사찰 건축물들이 합세하여 또 다른 기능을 하는 사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혹 능산리사지의 가람 전체의 건물지를 통틀어 창왕명석조사리감의 안치연대인 567년을 완공 연대로 이해한다거나 1차 건축군과 2차 건축군을 동시기로 파악하여 가람 전체가 동시에 릉사로 기능하였다는 견해들도 제기된 바 있지만, 발굴결과를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얻어진 결과들은 이제 능산리사지가 처음에는 성왕과 관련된 사묘로 기능하다가 567년 전후에 원찰로 전환된 것으로 확증되고 있다. 또 조사 결과와 출토유물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사찰 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도 진전되어 가고 있다.

왕흥사지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기록을 통해 法王 2년(600)에 창건되어 武王 35년(634)에 완성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1934년 ‘王興’명 고려시대 명문와편이 수집되어 일찍부터 王興寺址로 비정되었는데, 2000년부터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寺院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⁵³⁾ 가람은 목탑·금당·강당이 남북일직선상으로 배치된 구조인데, 중문이 위치하는 곳에 T

자형 石築 진입로가 있고, 사역의 서쪽 경계 지점에도 배수로와 별도의 진입 시설이 있다. 목탑지에서는 심초석과 명문사리용기를 비롯한 다량의舍利供養具들이 출토되었다. 금당지는 장방형 건물지 2기가 중복되어 있었는데, 바깥쪽 기단은 백제, 안쪽기단은 고려시대 기단으로 확인되어 이 사찰이 고려 시대까지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강당지 동·서편에는 별도의 건물지가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고, 동·서 회랑의 북쪽 끝에는 2기의 부속건물지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한편 사지 동편 150m 지점에서는 백제 와요지 16기, 고려 와요지 1기 등 窯址群이 조사되어 왕흥사의 기와 수급관계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이 왕흥사지 발굴 결과 확인된 내용들로서 종전 연구결과와는 사뭇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사리용기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577년에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목탑을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⁵⁴⁾ 그런데 577년이라는 연대는 문헌기록의 王興寺 창건기록보다 23년이나 빠른 것이다. 이를 두고 사리기 명문 중의 「立刹」에 대해 목탑의 건립에만 한정될 뿐, 문헌의 600년 창건기록은 사찰 가람 전체가 완성된 것을 의미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⁵⁵⁾ 그러나 北魏나 梁대의 「刹」이 「塔基表示」의 「刹」을 뜻하는 사례가 있는 바,⁵⁶⁾ 이를 창건 연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⁵⁷⁾ 그에 따라 2008년도에 금당과 목탑의 선후 관계를 밝히기 위한 토

-
- 53)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王興寺址Ⅱ-기와가마터 발굴조사보고서』(2007)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王興寺址Ⅲ-목탑지·금당지 발굴조사보고서』(2009)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扶餘 王興寺址-제11차 發掘調査」, 『2010 百濟文化를 찾아서』(2011)
- 54) 新川登龜男, 「古代朝鮮半島의舍利와舍利銘文-飛鳥寺再考の準備として」, 『古代東アジアの佛教と王權-王興寺から飛鳥寺へ』, 勉誠出版(2010.)
- 55) 李道學, 「王興寺址舍利銘文分析을 통해 본 百濟威德王代의 政治와 佛教」, 『韓國史研究』142(2008)
- 56) 小杉一雄, 「六朝及び隋代に於ける塔基表示」, 『中國佛教美術史の研究』, 新樹社(1980)
- 57) 李炳鎬, 『百濟佛教寺院의特性形成と周邊國家に及ぼした影響-瓦當・塑像・伽藍配置』

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당은 대지조성층 위에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만, 목탑은 대지조성층을 파고 축기부를 구축하여 건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보아 금당과 목탑이 거의 동시에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⁵⁸⁾ 이는 목탑과 금당 주변에서 출토된 동일한 瓦范型의 와당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왕흥사지는 가람 전체가 처음부터 같은 기획 하에 거의 동시에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발굴조사와 연구사례를 통하여 사지 발굴조사 결과를 문헌기록을 당연시하면서 무비관적으로 접맥시킨 나머지, 실제 발굴 결과와는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발굴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본적인 층위와 사찰 가람 및 건물지의 배치관계, 가람 중심부 각 건물지의 구조와 특징, 출토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데서 온 당연한 오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사역 전체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전면발굴의 중요성이다. 이 사지의 경우에도 아직 발굴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능산리사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찰과 관련된 역사·문화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역 전체와 주변지역까지 아우르는 전면 발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게 한다. 왕흥사지 가람의 외부까지 넓게 발굴한 결과,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건물지 배치구조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3면의 진입로까지 확인되었다. 회랑 북편의 동·서 외곽에서 방형의 특수한 건물지(동당·서당)가 대칭으로 확인됨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백제 사찰 가람구조 형식이 밝혀지게 되었다. 또 중문지에서 백마강으로 연결되는 진입로를 통하여 ‘백제 무왕이 매년 배를 타고 절에 들어가서 쉼을 피웠다’고 하는, 문헌기록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제 왕실과 왕흥사 사찰과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왕흥사 동쪽

を中心に-』早稲田大學校博士學位論文(2013.)

58)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王興寺址』Ⅲ(2009)

150m 지점까지 넓은 경역을 발굴함으로써 사찰(왕흥사) 건립과 관련된 수공업 생산체제와 가장 중요한 건축재료인 기와의 수급체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의 발굴조사 결과는 이러한 불교유적 현장에서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드러난 다양한 불교 유적·유물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치밀한 분석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원 조성과 관련된 대규모 토목 관련자료, 탑-금당-강당 등의 중심건물지 이외에 그에 딸린 부속건물지와 각종 시설들, 사찰 경역의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는 유구·유물, 파편으로 곳곳에 산재하는 토기편·기와편 하나하나가 사찰의 성격은 물론, 틀에 박힌 불교의식 이외에 승려들을 포함한 사찰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생활상을 복원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 발굴을 통하여 얻어진 이러한 연구 성과는 전체 사역과 그 외부까지 층위에 따라 전면 발굴한 결과 얻어진 것으로, 90년대 이후의 사지발굴의 典範이 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가 보고서로 공표되자 관련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가세하여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내고 있으며, 이제 사지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한 백제 불교고고학 연구는 그 외연이 크게 확대되고, 연구의 깊이도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5. 200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중반 이후 일제강점기나 그 이후에 1~2차례 발굴되었으나 가람 배치 구조나 성격이 불분명한 사지에 대한 재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물론 유명·무명의 다른 사찰들도 계획적으로, 또는

건설공사에 수반한 구제 발굴 형태로 그 이전에 비해 더 많이 조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부실 발굴 사지를 재 발굴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이 시기를 불교고고학 연구의 획기로 본 것은 불교고고학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제강점기 이래 1~2차례 발굴되었지만 그 가람배치구조와 성격, 창건 시기와 변화과정이 불분명하여 불교고고학 연구의 큰 걸림돌이 되었던 백제 정림사지와 신라 사천왕사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정림사지는 부여에 있는 25개소의 사비시대 사지⁵⁹⁾ 중 하나로, 사비도성 중심부에 건립된 대표적인 백제 사찰이다. 정림사지의 이러한 입지적인 특성은 이 사찰이 백제 당시에 도성 내부에서 랜드마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⁶⁰⁾ 정림사지는 조선후기부터 백제의 廢寺址로 알려져 왔으며,⁶¹⁾ 1920년대 전반기에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5층석탑 銘文과 石塔 조사가 있었다.⁶²⁾ 1942~43년에는 강당지와 금당지 일대가 시굴 조사되었지만,⁶³⁾ 본격적인 조사 연구는 1979년에 있었던 발굴조사 이후부터 이루어졌다. 당시 가람배치와 건물의 평면계획, 기단의 구조를 비롯하여 불상과 塑像, 기와, 토기 등 출토유물들이 보고되었으며,⁶⁴⁾ 곧이어 方形蓮池가 새로 조사되고, 5층석탑 기단부에 대한 시굴조사를 근거로 석탑은 창건기에 건립된 것으로 파악하였다.⁶⁵⁾ 그 결과 백제 석탑 중 가장 이른 형식으로 각인되

59)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百濟廢寺址-學術調查報告書』, 學術研究叢書 48집(2008)

60) 李炳鎬, 「泗沘都城과 慶州王京의 比較試論」,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29(2008)

61) 扶餘文化院, 『扶餘의 地理志・邑誌』 I・II(1999・2000)

62) 喜田貞吉, 「大唐平百濟國碑に關する疑問」, 『考古學雜誌』15卷5號(1925)

杉山信三, 「大唐平百濟塔の比例に就いて」, 『考古學』8卷6號(1938)

米田美代治, 「扶餘百濟五層石塔の意匠計劃」, 『韓國上代建築の研究』, 秋田屋(1944)

63) 藤澤一夫, 「古代寺院の遺構に見る韓日の關係」, 『アジア文化』8卷2號(1971)

64) 尹武炳, 『定林寺-定林寺址發掘調査報告書』, 忠南大學校博物館(1981)

65) 尹武炳, 「扶餘 定林寺址 蓮池遺蹟發掘報告書」, 『百濟研究』18(1987)

어 미륵사지 석탑과의 선후문제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였다.⁶⁶⁾ 이러한 과정에서 정림사지 5층석탑의 편년과 양식 문제, 불상, 소장 등 중요유물의 양식과 계통 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사찰 가람과 출토유물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연구되지는 못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논란을 해명하고 불분명한 가람배치 및 건물지 배치관계를 파악하고, 정림사지 정비 복원을 위한 자료 확보를 꾀한 대대적인 재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동·서회랑지 북쪽에 배치되는 부속건물지가 백제 사찰 가람의 定型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⁶⁷⁾ 이 정림사지의 재 발굴을 계기로 그 이전에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 발굴 결과 나타난 이러한 부속건물지 배치 구조가 백제 사비기의 이른 시기 사찰가람의 건물지 배치유형임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찰의 구체적인 창건 시기나 5층석탑의 창건기석탑설은 해명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이래의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와 유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사비 천도기의 역사적 정황과 사비도성 내부의 전체적인 경관, 도로 등 도시계획과의 관계 등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검토한 결과, 사비천도 이후 사비도성에 최초로 건립된 백제식 사원으로 파악되기에 이르렀다.⁶⁸⁾ 정림사지형 가람배치가 백제식 가람배치의 출발인지, 정림사지가 사비 천도 후 최초로 창건된 사찰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지만, 부실하게 발굴된 중요한 사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지조사 연구가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으로, 그리고 해명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의 좋은 사례임에는 틀림없다.

신라 사천왕사지는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문무왕 10년(670) 또는

66) 嚴基杓, 「百濟 石塔의 先後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16(2001)

67) 鄭子英, 「부여 정림사지 가람배치와 편년적 검토」, 『韓國上古史學報』76(2012)

68) 李炳鎬, 「百濟 定林寺式伽藍配置의 展開와 日本의 初期寺院」, 『百濟研究』54集, 충남대 백제연구소(2011)

11년(671)에 절을 세우고, 문무왕 19년(679)에 절을 고쳐짓고 ‘사천왕사’라 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고, 지표상에 중요 건물지들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드러나 있어 일제강점기부터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조사는 대부분 남아 있던 건물지에 대한 측량과 유물 수습 등이 중심이었다.

1915년과 1916년에는 서탑지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져 녹유신장벽전, 녹유능형전이 확인되었으며,⁶⁹⁾ 1922년에는 금당지, 탑지 등에 대한 유구 실측과 토단 위에 있는 초석에 대한 실측도가 작성되었다.⁷⁰⁾ 사천왕사지의 가람 배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28년 藤島亥治郎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가람배치를 추정, 복원도를 작성한 도면이 보고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⁷¹⁾ 여기에 1940년 米田美大治가 사역 내부에 대한 세밀한 측량조사를 통해 일본 奈良의 藥師寺 가람과 비교 연구하면서⁷²⁾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해방 이후 1961년 경주의 한 민가에서 사천왕사에 세워진 문무왕릉비편이 재발견되어⁷³⁾ 사천왕사비에 대한 연구와⁷⁴⁾ 사천왕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었으나, 본격적인 발굴조사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사천왕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차에 걸쳐 이루어져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불분명한 내용들이 해명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전체 사찰은 성토에 의한 대지조성을 한 후에 건립되었으며, 사찰가람 남-북중심축에 좌·우 대칭으로 건설된 2개의 석교를 통

69) 諸鹿史雄, 「朝鮮慶州發見釉磚」, 『考古學雜誌』 第6卷 第8號, 日本考古學會(1916)

70) 小泉顯夫・梅原末治・藤田亮策, 「慶尙南北道・忠清南北道 古蹟調査報告」,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朝鮮總督府(1924)

71)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景仁文化社(1928)

72) 米田美大治, 『朝鮮上代建築の研究』, 秋田屋(1944)

73) 홍시준, 「新羅 文武王陵 斷碑의 發見」, 『美術資料』 3(1961)

74) 홍시준, 「신라문무왕릉단비 추가」, 『고고미술』 제3권 9호, 고고미술동인회(1962)
황수영, 「금석문의 신례」, 『한국학보』 5, 일지사(1976)

해 사찰로 진출입하는 통로도 확인되었다. 또 그동안 추정만 해 오고 있었던 강당지, 회랑지, 익랑지, 비각, 石橋, 배수로 등이 추가로 확인되고, 목탑지 심초석과 목탑 기단부의 축조방법, 각 건물지들의 정확한 구조와 축조방법 등이 확인됨으로써 마침내 구체적인 사찰 가람배치구조가 밝혀졌다.

한편 금당지 기단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금당지는 후대에 한번 중수하여 확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단 지대석과 기단 내에 배치된 상·하층 기단의 초석 역시 금당지의 확장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 여기서 출토된 ‘四天王寺’, ‘四天王寺己巳年重修瓦’銘 기와를 통해서도 금당지를 중심으로 한 사찰의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기록에 전하는 문무왕 19년(679)에 절을 고쳐짓고 '사천왕사'라 했다는 기록과 접맥되었다. 또 사역의 동·서쪽과 남쪽 일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동·서익랑지, 동·서회랑지, 남회랑지 등도 확인되었다. 이로써 동·서에 익랑이 있고, 회랑으로 위요된 쌍탑일금당식의 가람배치가 완전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동·서목탑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녹유신장벽전이 탑의 面石처럼 사용되었다는 것과 그 배치상태, 심초석과 기단부의 축조방법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이 일제강점기 이래 조사되어 밝혀진 사천왕사지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흔히 통일신라 초기에 창건된 사천왕사에 쌍탑식가람배치가 처음 등장하며, 이후 682년에 창건된 감은사, 685년에 창건된 망덕사와 함께 통일신라 사찰의 가람배치구조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천왕사지 가람은 일탑일금당에서 쌍탑일금당으로 변화되는 효시가 되는 사찰로서 이를 기점으로 하여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사찰의 가람배치가 확연하게 바뀌는 획기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최근 재조사에 의해 밝혀진 많은 발굴조사 성과들은 향후 사천왕사 자체의 역사·문화상뿐만 아니라, 신라와 통일신라 사찰의 가람배치와 그 구조 변화, 가람 내의 각종 건물지의 성격과 배치관계, 와전류, 토기·자기류, 녹유신장벽전, 금공품류, 수정·유리구슬류 등의 많은 출토유물

을 통해 앞서 검토한 정림사지의 재 발굴을 통해 얻어진 것 이상의 막대한 연구 성과가 여러 분야에서 파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강점기에 부실 또는 졸속 발굴된 정림사지와 사천왕사지의 재 발굴을 통해서 얻어진 많은 성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에 발굴된 고대 사지들은 하나같이 그 역사성과 중요성이 다른 사지들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지들이므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하나하나 재 발굴되어 각 사찰 본래의 위상과 역사상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당위성을 웅변해 주고 있다.

III. 佛教考古學 研究의 進展을 위하여

이상에서 일제강점기부터 사지발굴을 중심으로 한 불교고고학 조사·연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발굴조사 연구방법과 불교고고학 연구의 획기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지 발굴조사·연구 사례들을 검토하여 그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여기에서는 사지 발굴조사·연구를 중심으로 한 불교고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불교고고학의 대표격인 사지 발굴조사는 정당한 고고학적 발굴방법에 의하여 사역 전체와 주변지역까지 광범위에 걸쳐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에 사지 발굴 및 연구가 건축사학자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사지 조사 연구는 건축사의 전유물인 양 오랫동안 인식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해방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어 아직도 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지 발굴사례가 많다. 물론 이러한 건축사적 발굴과 연구방법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고대사지에 대한 그동안의 건축사적 연구 성과를 폄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에 관한 한 정당한 고고학적 방법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불교고고학 연구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은 유적의 성격에 맞는 정당하고 올바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지 내에 있는 석축 건물지의 평면적 확인에만 급급한 발굴방법에 기인하는 바가 많다. 과거 일제강점기 이래의 사지 발굴에서 평면 구조 확인을 위한 부분적인 트렌치 발굴 결과 드러난 병폐는 그 이후 재 발굴된 사지의 사례를 통하여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고대 사찰이 넓은 공간에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고 입지하는 대단위 유적인 만큼, 최소한 발굴범위는 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외곽까지 넓은 면적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한 단위의 사찰 규모와 그 전모는 최소한 사역 이외의 범위까지 전면적으로 발굴되어야만 확정할 수 있다. 특정한 건물지 또는 건물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만 트렌치를 설치하여 사역의 규모나 범위, 건물지의 성격을 추정하는 발굴 행태는 더 이상 ‘추정’ 이상의 연구를 진행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연구 결과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 발굴의 범위 확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넓은 사역 곳곳에 대한 층위 파악이다. 실제 고대 사지의 발굴조사 역시 다른 유적의 발굴과 마찬가지로 층위에서 시작하여 층위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예로 든 사지 조사 연구의 획기가 되는 중요 사지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층위 발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찰의 건립 시기와 축조과정, 건물지와 출토유물의 상호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층위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유구와 유물들은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되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잃게 되어 그 자체의 의미는 물론, 이를 통한 건물지 상호관계의 검토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러한 자료에 의한 역사·문화상의 복원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사지 발굴에 임해서는 사역 전체의 평면적인 배치관계의 파악도 중요하지만 시종일관 사역 전체와 개별 건물지, 건물지 상호간의 층위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한다. 이 기본적인 층위관계 파악이 잘못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 그 다음의 후

속 연구는 그릇된 결과를 확대 재생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초 사료를 왜곡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역 전체에 대한 중·횡의 기본적인 층위 파악은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단위 건물지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층위 확인도 적재적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찰은 한번 건립되면 장기간 종교 기념물로 기능하면서 여러 차례 수축·중건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층위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사찰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가람배치의 변화과정, 각 건물지의 변화과정 파악은 요원하다. 따라서 정당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한 정밀한 층위 파악에 의해 사역의 규모, 가람배치 구조, 사역 내의 각 건물지와 시설물의 구조와 특징, 출토유물의 정확한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사찰 건물지 기단과 그 아래의 대지조성층의 층위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찰의 초축에서부터 수축·중건·폐찰에 이르는 과정과 그 이후의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제 사찰의 경우 谷間을 순차적으로 메워 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각종 건물지와 여러 시설들을 구축하고 있음을 볼 때 사역의 바탕 층위에 대한 토층조사는 필수적이다. 능산리사지의 초축시기와 祠廟에서 願刹로의 기능변화 과정 파악도 이러한 기본적인 층위 파악에서 시작된 것임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다. 또 황룡사지 축조를 위한 대지조성층 조사 결과, 황룡사의 창건에서부터 역사적 변천과정이 파악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를 문헌 기록과 대비하여 재해석함으로써 황룡사의 변천과정을 입증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각 층위에서 출토된 유물은 역으로 해당 유물의 표지적인 편년자료가 되고 있다. 대지조성층에서 출토된 신라토기는 목탑지 건립 연대에 근거하여 6세기 중엽의 신라후기양식토기 편년의 표지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찰 건물지 하부의 층위 확인은 사찰의 초창, 중창, 폐사 등의 제 과정을 계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열쇠가 되며, 문헌 기록 등에 그 사지와 관련된 절대연대가 있는 경우는 거기서 출토된 유물들이 편년의 표준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바탕 위에 고고학·미술사학·건축사학·불교학·문헌사학 등의 학제간 융합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고고학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발굴조사와 종합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망된다. 사찰이 불교라는 종교적 교리와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건립된 종교기념물인 이상, 그 불교 교리·사상과 사찰 및 건축물 구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불교고고학 전문가가 발굴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다만 이 경우 불교고고학 전문가는 사지 전역은 물론 적재적소의 층위관계 파악을 비롯한 고고학 발굴방법에 정통하여야 한다. 대규모 복합유적인 사지를 이러한 모든 영역의 지식과 조사·연구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조사 연구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교고고학 전문연구기관에 이러한 다방면의 전문가를 포진시켜 협조체제로 조사·연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딱히 불교고고학 전문연구기관이 없는 현상에서는 우선 불교유적 발굴 경험이 많은 불교고고학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발굴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파행과 부실 발굴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불교고고학 전문가가 현장 발굴조사와 보고서 작성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도 필요하다. 불교고고학에 문외한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발굴하는 불교유적은 전체 유적의 성격은커녕, 건물지 등 개별 유구의 성격이나 구조와 특징, 축조방법 등에 대한 안목과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으므로, 온당한 발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 사지로 대표되는 불교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하나의 사지는 시종일관 단일 기관과 전문가가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 하나의 사지에 대한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기관이 제각각이고, 하물며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발굴조사마저도 여러 기관이 발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지고고학 연구의 진전은커녕, 현상 유지도 기대하기 어렵다.

앞서 예로 든 대표적인 사지 발굴들이 불교고고학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게 된 것은 그 자체로도 역사기록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찰들

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지의 발굴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보고서 발간작업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한 불교고고학 전문 연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의 사지는 그 규모면이나 유적의 성격, 역사성 등으로 볼 때 하나의 사지 발굴조사와 연구에 평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적이다. 앞에서 예로 든 고대 사지를 오랫동안 발굴조사와 연구한 불교고고학 연구자들은 그 사찰의 주지스님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고대의 사지 하나는 그 규모와 輕重은 있지만, 관심 있고 능력 있는 불교고고학자가 평생을 바쳐 발굴조사와 연구해도 모자랄 만큼 충분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것이다.

셋째, 발굴 결과와 그 보고서는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그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발굴이 완료된 후 경우에 따라서는 유적이 없어질 수도, 보존될 수도 있다. 보존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굴된 유적을 다시 발굴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거의 없다. 따라서 발굴이 잘못되어 왜곡된 기초자료가 생산되는 경우 그 유적과 관련된 역사·문화상과 생활상의 복원은 영구히 반신불구를 면하기 어렵다. 반면에 제대로 된 발굴이 이루어져 그 유적 본래의 精蘊을 모두 얻은 발굴은 그 유적과 관련된 역사상의 해석을 둘러싸고 갖은 논쟁은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그 유적에 힘입어 올바른 역사·문화상을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사지를 대표로 하는 불교유적을 지나치게 정치사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연구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찰은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상이 총결집된 대단위 복합유적이자 기념물이다. 따라서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상에서는 특정 사지, 특히 역사 기록에도 나오는 중요 사찰의 경우, 발굴조사 결과가 공표되기도 전에 창건시기와 건립배경, 국가 또는 왕실과의 관계 등 역사적·정치사적 문제에만 집착하여 연구하려는 경향이 짙다. 물론 창건 시기나 창건 배경, 사찰의 정치사회적 기능 등도 불교고고학 연구의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나친 정치사

적 논의에 매몰된 나머지 다른 중요한 주제의 연구는 불식되거나 화두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너무 지나치게 문헌사 중심의 연구에 경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교고고학이 사지를 비롯한 불교유적·유물에 바탕을 두고 연구하는 학문인 이상, 불교사상과 교리 등과 관련된 연구가 본령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찰은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상이 총결집된 대단위 복합유적임을 고려할 때 모든 분야에 걸쳐 균형 잡힌 연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불교고고학 연구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의 문헌사 연구에서와 같이 특정 사지의 발굴 결과를 불교적 교리나 사상 하나만으로 접근하거나, 해당 국가나 왕실 또는 특정세력과 결부시켜 정치사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통신앙이나 사상, 유교·도교 등의 타 종교와의 관계, 사찰을 중심으로 한 인적·물적 교류, 수공업 생산과 수급, 사찰 안팎에서의 사찰과 관련된 사람들의 생활·문화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불교유적에서 종종 출토되는 금석문 자료와 문헌자료는 당대의 왕실이나 귀족, 승려 등의 특정 계층과 관련된 내용만을 담은 특수한 역사의 한 부분만을 전하는 것일 뿐, 사찰의 종합적인 기능과 성격, 사찰과 관련된 사람들의 생활·문화상까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님은 주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문헌과 금석문 자료만을 가지고 당시 사찰의 모든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시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이 경우는 위덕왕과 그의 누이가 발원하여 567년 전후에 창건된 능산리사지 발굴조사 결과 나타난 다종다양한 고고학 자료들과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분야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다섯째, 일제강점기나 과거에 발굴 조사되었으나 그 성격이나 건립시기, 가람배치구조, 건물지의 구조와 성격 등이 불명확한 사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재 발굴되어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었을 때 진정한 불교고고학 연구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사실 일제강점기나 불교고고학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시기에 발굴된 고대 사지들은 대개 문헌에 기록되어 있

거나 대규모 거점사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찰들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과거 고고학 발굴조사 방법론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 부실하게 발굴된 중요한 사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재조사 연구되고, 해명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기 발굴된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좋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정림사지와 사천왕사지의 재발굴 결과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 발굴을 통하여 미진한 부분의 보완과 함께 새로운 학술자료를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와 같은 고대 사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제강점기 또는 과거에 조사되었으나 사찰의 성격과 가람배치 구조, 개별 건물지의 성격과 구조, 층위에 의한 선후관계, 사찰의 변화과정 등이 불명확한 중요 사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지 하나하나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적 평가가 재조명되어야 한다. 불교학이나 불교고고학 전문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학술적 조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사지를 발굴 조사한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다방면에 걸친 심도 있는 학술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해당 사지의 성격 규명뿐만 아니라 불교고고학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이다. 일본의 경우 중요한 개별 사지에 대한 학술적 재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종래 밝혀지지 못했던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무명의 사지들이 유명한 사지로 재평가 받고 있는 예가 많은 것은 좋은 참고가 된다. 사지와 같은 대규모 복합유적인 고대 산성 하나하나에 대하여 성곽학회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종합적인 학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좋은 참고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학술적 재평가와 함께 관련 자료들과 연구 성과를 종합·정리한 특별전시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환원시켜 연구의 시너지 효과도 함께 도모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불교고고학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고고학의 자성과 함께 불교사상과 교리, 불교의 사회적 역할 등과 같은 불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사실 지금까지 고고학계에서는 불교유적 발굴은 전적으로 고고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해 오고 있지만, 기실은 발굴조사 방법 이외에 불교지식을 갖춘 연구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불교사상 및 교리에 문외한인 고고학 연구자는 자신이 발굴한 불교유적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답습하고 마는 경향이 짙다. 이런 형태의 발굴과 연구로는 사찰이라는 종교 건축물의 진정한 의미에 다가갈 수 없다. 사지의 건축물들이 불교 기념물들이인 이상 거기에는 당연히 불교사상이 반영되어 있다.⁷⁵⁾ 예를 들어 통일신라 · 고려시대 사지를 발굴하다 보면 건물지 기반이나 대지에 각종 유물들이 매납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된다. 이런 경우 대부분 지진구나 진단구 또는 퇴장유물로 간단히 결론짓고 만다. 물론 지진구나 진단구가 많다. 그러나 지진구나 진단구도, 퇴장유구 · 유물도 아닌 경우도 많다. 특히 퇴장유물로 간단히 처리해 버리는 것은 그것이 지닌 다른 중요한 의미들을 사상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진구나 진단구는 엄밀한 의미에서 불교사상과 관련되기보다는 도교사상과 관련되는 의례행위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구덩이를 파고 매납된 유물들을 주의 깊게 분석해 보면 불교관련 유물들이 대량으로 매납된 경우도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금강령, 금강저, 청동향로, 청동바루, 청동호, 청동대야, 청동완, 청동시저 등 금속제의 불교의식구와 생활용구들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는 지진구 · 진단구도, 퇴장유물도 아닌, 불교의례의 결과인 것이다.

불교고고학의 진전을 위해 제기한 이상의 各說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제대로 실

75) 김길식, 「고려 개경 서부건축군의 성격과 배치구조의 사상적 배경」, 『고고학』 11-1호, 중부고고학회(2012)

행될 때 불교고고학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교고고학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면서 불교고고학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구심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많은 불교고고학의 세부 주제별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세분화된 학문 분야별 연구 성과를 종합함과 동시에 가람배치나 건물지 등의 여러 유구들을 공반유물과 함께 좀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를 불교사상과 교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교고고학 관련 전문 학술단체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불교고고학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불교고고학 관련 전문 학술단체 ‘불교고고학회’의 창립과 활동이 시급히 요망된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고대 사찰의 조사와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대략적인 분포현황이 파악될 만큼, 다른 분야에 비해 오랜 연구사를 갖고 있다. 그것은 당시 고적조사가 주로 건축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관계로, 그들의 1차 관심이 사찰과 같은 건축에 있었기 때문이다. 1916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건축·고고·역사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경주지역 불교유적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되면서 1918년 경주 사천왕사지에 대한 최초의 발굴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1902년~1931년까지의 조사는 주로 경주의 신라 사찰 건조물이나 사역 내에 남아 있는 불상, 탑 등의 불교유물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주종을 이루었다. 1931년 조선고적연구회가 발족되면서부터 고대 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종전의 경주지역 사지뿐만 아니라 평양·부여지역에서도 다수의 사지 발굴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때부터 사지 발굴조사가 고구려·

백제 사지로 확대되고, 발굴조사도 많이 이루어지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조사는 측량에 의한 탑-금당-강당 등 사찰의 중심 건물의 대략적인 배치구조를 파악하고, 중요 건물지를 중심으로 몇 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국부적인 발굴만을 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층위관계를 통한 건물지의 중복관계와 수축과 중건과정, 가람의 변천과정 파악은 요원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발굴된 고대 사지들은 조사내용이 너무 소략하고, 사찰의 평면 배치구조와 창건·존속시기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발굴이어서 그 후 불교고고학 연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지발굴조사 및 연구 경향은 해방 후 우리 손으로 발굴하게 되면서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개성 홍왕사지 발굴을 시작으로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사지 발굴조사와 연구가 미술사 연구의 중요한 중심축이 되기 시작하였다. 1959년 경주 감은사지 발굴조사를 계기로 사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연구 조짐이 있었으나 70년대까지 건축사적 발굴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고대 사지 조사 연구에 일대 전환점이 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사된 황룡사지와 미륵사지 발굴이었다. 이 두 사지의 발굴조사는 사역 내·외부 전역에 걸쳐 층위에 입각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져 사지조사 방법론의 변화와 학제간의 접점을 찾아 준 획기적인 발굴이었다. 이 시기 이후부터 고대 사지 발굴의 중심축이 종전의 건축사 중심에서 고고학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백제의 중요한 사지들이 대거 발굴 조사되어 백제 불교고고학을 추동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주의 분황사지를 비롯한 통일신라 사찰들도 계획적인 발굴이 이루어지고, 이름 모를 사찰들이 구제 발굴되어 그동안 확인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지만, 백제 사지발굴 성과에 가려지고 말았다. 이 시기 발굴 역시 사역 내·외부의 전면 발굴과 정밀한 층위발굴에 의해 가람배치 구조와 그 변화 과정이 파악되고, 백제 사찰 가람배치구조의 새로운 형식이 정립되는 등, 중

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종전부터 해오던 중요한 사지의 계속적인 발굴과 함께 일제강점기나 과거 부실발굴에 의해 사지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연구에 장애가 되어 온 중요 사찰들에 대한 재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종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이 대거 확보되고, 종전 연구의 오류를 수정·보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부실 발굴된 정림사지와 사천왕사지의 재조사 결과는 과거 부실하게 조사된 중요 사지 재발굴의 당위성을 웅변해 주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래의 불교유적 조사 연구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교고고학 연구를 한층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몇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어떤 경우든 불교유적 발굴조사는 층위에 입각한 정당한 고고학적 발굴방법에 의하여 사역 전체와 주변지역 일부까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둘째,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교고고학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발굴조사와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셋째, 발굴 결과와 그 보고서는 후속 연구를 위한 영구불변의 기초자료이므로 그 내용을 올바른 방법으로 충실히 담아내어야 한다는 점, 넷째, 이러한 바탕 위에 고고학·미술사학·건축사학·불교학·문헌사학 등의 학제간 융합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섯째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상이 총결집된 대단위 복합유적이자 기념물인 고대 사지 발굴조사 결과를 지나치게 정치사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연구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여섯째, 일제강점기나 과거에 조사되었으나 그 성격이나 건립시기, 가람배치구조, 건물지의 구조와 성격 등이 불명확한 사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재발굴되어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일곱째, 고고학의 자성과 함께 불교고고학자는 불교의 역사와 사상 및 교리, 불교의 사회적 역할 등과 같은 불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 여덟

째, 불교고고학의 세부 주제별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세분화된 학문 분야별 연구 성과를 종합함과 동시에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구들을 공반유물과 함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의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방안들은 대부분 원론적인 것들이지만 이러한 원론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채, 작금의 불교고고학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당면한 문제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불교고고학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불교고고학회’와 같은 전문 학술단체의 창립과 활동이 시급히 요망된다.

➡ 논문 및 단행본

國立文化財研究所·益山市,『彌勒寺復原研究學術資料叢書』Ⅰ～Ⅳ, 2010.

_____,「彌勒寺 寺刹配置」,『彌勒寺復原考證基礎調查研究報告書』2, 2010.

國立文化財研究所,『彌勒寺址石塔-基壇部發掘調查報告書』, 2012.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益山 彌勒寺址 東塔址 基壇 下部 調查報告書』, 2, 1992.

_____,『彌勒寺址西塔 周邊發掘調查報告書』, 28, 2001.

_____,『王興寺址 - 가』, 2007.

_____,『陵寺 10』, 2008.

_____,『百濟發寺址-學術調查報告書』,學術研究叢書 48, 2008.

_____,『 () - -』, 53, 2009.

_____,『王興寺址 -』, 2009.

_____,『 () - -』, 54, 2010.

_____,「扶餘 王興寺址- 11 發掘調查」,『2010 百濟文化』, 2011.

_____,『 () - , , , -』, 54, 2012.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感恩寺發掘調查報告書』, 1997.

金吉植,「百濟 始祖 仇台廟 陵山里寺址 -祀廟 陵寺 -」,『韓國考古學報』52, 2009.

_____,「『 』,『 』 11-1 , 2012.

- , 「
」, 『
』, 2013.
- 「
」, 『
』 1 -
- 』, 2003.
- 金相鉉, 「百濟 武王代 佛教界 動向 彌勒寺」, 『韓國史學報』37, 高麗史學會, 2009.
- 金成南·李美賢, 「日帝強占期 遺蹟 發掘調查 再檢討」, 『日帝強占期 泗泚 認識』, 2009.
- 金載元·尹武炳, 『感恩寺』, 國立博物館, 1961.
- 「
가
」, 『
』, 1984.
- 『
』, 2005.
- 『
』, 1984.
- 朴仲煥, 「扶餘 陵山里發掘 木簡 豫報」, 『韓國古代史研究』28, 2002.
- 扶餘文化院, 『扶餘 地理志邑誌』 · , 1999- 2000,
- 「
-
-」, 『
』 38 , 2009.
- 申光燮, 「百濟 泗泚時代 陵寺 研究」, , 2006.
- 申昌秀, 「三國時代 新羅 研究 -皇龍寺址 出土 新羅 中心 -」, 『文化財』
20, 1985.
- 申昌秀, 「中古期 王京 寺刹 都市計劃」, 『
』 16, 1995.
- 梁正錫, 『新羅 中古期 黃龍寺 造營 意味』, , 2001.
- , 「寺址考古學序說」, 『
』 481 , , 2004.
- , 「彌勒寺址 塔址 調查過程 檢討」, 『韓國史學報』36, 高麗史學會, 2009.
- 嚴基杓, 「百濟 石塔 先後 考察」, 『文化史學』16, 2001.
- 尹武炳, 『定林寺 定林寺址發掘調查報告書』, 忠南大學校博物館, 1981.
- , 「扶餘 定林寺址 蓮池遺蹟發掘報告書」, 『百濟研究』18, 1987.
- 「
」, 『
』 202,
1994.
- 「
」, 『
』 12, , 1998.
- 李道學, 「王興寺址舍利器銘文分析 百濟威德王代 政治 佛教」, 『韓國史研究』
142, 2008.

- 李炳鎬, 「扶餘 陵山里寺址 伽藍中心部 變遷 研究」, 『韓國史研究』 143, 2008.
- , 「泗沘都城 慶州王京 比較試論」,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29, 2008.
- , 「百濟 定林寺式伽藍配置 展開 日本 初期寺院」, 『百濟研究』 54集, 2011.
- , 「百濟 寺院 日本 飛鳥寺 三金堂 原流」, 『百濟研究』 57集, 2013.
- 李順子, 「
2009.
- , 「
」, 『
』 10, 2009.
- , 「
-
-」, 『
』 12(2), 2003.
- . 「
」, 『
』 47
7 (117), 1998.
- , 「
」, 『
』, 2001.
- , 「
가
-
-」, 『
() -
-』,
54 , 2010.
- , 「
가
」, 『韓國上古史學報』 76, 2012.
- , 『
』, 1992.
- , 「
」, 『
() -
,
,
-』,
54 , 2012.
- , 「
」, 『
』 5, 1978.
- , 「新羅 文武王陵 斷碑 發見」, 『美術資料』 3, 1961.
- , 「
」, 『
』 3 9 , 1962.
- 小杉一雄, 「六朝及隋唐代に於ける塔基表示」, 『中國佛教美術史の研究』, 新樹社, 1980.
- 小泉顯夫 梅原未治 藤田亮策, 「慶尙南北道・忠清南北道 古蹟調査報告」,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朝鮮總督府, 1924.

- 高正龍, 「扶餘時代の藤澤先生」, 『朝鮮古代研究』5, 2004.
- 金東賢, 「黃龍寺の建築計劃に關する考察」, 『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 1992.
- 新川登龜男, 「古代朝鮮半島の舍利と舍利銘文-飛鳥寺再考の準備として」, 『古代東アジアの佛教と王權-王興寺から飛鳥寺へ』, 勉誠出版, 2010,
- 田中俊明・東朝, 『韓國の古代遺蹟 1 -高句麗・新羅篇-』, 中央公論社, 1988.
- 諸鹿央雄, 「朝鮮慶州發見和尊」, 『考古學雜誌』第6卷 第8號, 日本考古學會, 1916
- 關野貞, 『韓國の建築と藝術』, 1904.
- 杉山信三, 「大唐平百濟塔の比例に就いて」, 『考古學』8卷6號, 1938.
- 米田美代治, 「扶餘百濟五層石塔の意匠計劃」, 『韓國上代建築の研究』, 秋田屋, 1944.
- 米田美代治, 『朝鮮上代建築の研究』, 秋田屋, 1944.
- 喜田貞吉, 「大唐平百濟國碑に關する疑問」, 『考古學雜誌』15卷5號, 1925.
- 李煥鎬, 『百濟佛教寺院の特性形成と周邊國家に及ぼした影響 -瓦當塑像伽藍配置を中心に-』, 早稻田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13.
- 石田茂作, 「百濟寺院と法隆寺」, 『朝鮮學報』5, 1953.
- 朝鮮總督府, 「內東面 四天王寺址 一部調査」, 『大正七年古蹟調査報告』, 1922.
- , 『大正十一年古蹟調査報告』, 1924.
- ,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1937.
- , 『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1940.
- 濱田耕作, 『新羅古瓦の研究』, 京都帝國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報告 13冊, 1935.
- 藤澤一夫, 「百濟佛教遺蹟の研究」, 『人文』3卷1號, 1946.
- , 「古代寺院の遺構に見る韓日の關係」, 『アジア文化』8卷2號, 1971.
- , 「百濟國都四比城と日本靑河國百濟郡」, 『激動の古代東アジア』, 帝塚山考古學研究所, 1995
- 藤島亥治浪, 『朝鮮建築史論』, 1931.
- , 「朝鮮建築史論 其三」, 『建築雜誌』2, 1930.
- , 『朝鮮建築史論』, 景仁文化社, 1979.

Abstract

Current Status of Archaeological Studies of Ancient Buddhism Remains and A Problem Awaiting Solution in Korea

Kim Gilsik || Professor of Yongin University

The archaeological studies of ancient Korean Buddhism has relatively long history compared to many other fields. After Sachunwangsa temple-site in Gyeongju was first excavated and studied in 1918, studies until 1931 mostly focused on understanding condition of the relics located around Gyeongju, which are related to Silla Buddhism. 1931 inaugurated Research Society of Chosun Historical Remains and it triggered studies on temple sites of not only Silla but also of Koguryo and Baekche. However, the study was weakly done in the era as it was limited to understanding major building sites, so it led to various problems for further studies since then.

From colonial emancipation to the 1970s, temple sites were the main theme of art historic studies. The excavation of Gameunsa temple-site collected archaeological attention, but the study was highly limited to architectural perspective as in the past. However, excavation study of Whangyongsa temple-site and Mirueksa temple-site in the mid 1970s to late 1980s was a turning point of temple sites study, since it was thoroughly done with archeological research methods. Afterwards, important temple sites of Baekche were found and studied from 1990s to

the mid 2000s, and it led to further encouragement on studying Baekche Buddhism archaeology. Since the late 2000s, re-excavation was done on temple sites that were considered important but weakly analyzed in the past, and errors were revised.

To solve problems occurred in studies on the remains of Buddhism since Japanese colonial era, and to make a progress on Buddhism archaeological studies, there should be a thorough and well-done excavation on the entire temple site and additional adjoining regions. In addition, temple sites that are excavated and analyzed weakly in the past should be re-excavated so that their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s are clearly defined, and excavation result should be faithfully reported. Studies on temple sites ought to be an interblending of interdisciplinary, macroscopic, and comprehensive researches. History, idea, and doctrine of Buddhism should also be understood in that sense. To solve these problems fundamentally, a foundation of specialist academic society such as The Buddhism Archaeological Society and its efforts are immediately needed.

• **Key words** : Ancient temple-site, Buddhism remains, The time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Buddhism Archaeology, Buddhist temple structure, Architecture remains, Deficient; excavation, Stratigraphical excavation, Fusion research